서암스님은

조계종 9대종정 역임
청빈 일관 무소유 실천



우연히 산에 올랐다가 문득 스님이 되고픈 소년이 있었다. "스님, 저도 절에서 살고 싶어요." "중노릇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다." 그래도 소년은 끊질기게 스님에게 매달렸고 드디어 허락을 받는다. 3년 동안 절에서 머슴살이하는 조건으로. 이리하여 서암 스님은 불가와 인연을 맺는다.

1914년 경북 영주에서 나신 서암 스님은, 1935년 예천 서악사에서 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8·15광복 전에는 금강산 일대의 제방을 두루거쳤고, 철원의 심원사에서는 강사 소임을 맡기도 했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봉암사 조실을 거쳐 조계종 제9대 종정을 지냈다.

이미 바닥을 다 드러보인 다음이라 이제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이것 저것 여쭈어 본다.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게 조실이나 종정으로 계실 때보다 훨씬 좋으시겠습니다."

"좋고 나쁠 게 어디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달라질 게 없어. 똥지게를 지든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하든 사람의 본바탕은 달라질 게 없어요."

스님은 천상 스님이셨다. 지나온 자취에 미련 두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도 연연해하지 않는 영원한 오늘을 사는 분. 속 깊이 흐르는 장강처럼, 가고 옴에 걸림이 없으신 그런 분이셨다.

그 흔한 글귀 하나 걸어놓지 않은 무위정사의 출입문 안쪽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하루에 예닐곱번 다니는 버스 시간표가 적혀 있다. 가끔씩 나들이를 하실 때 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이다. 이곳저곳에서 청해오는 법문 요청도 대부분 거절하시지만 가끔씩은 법문도 하신다. 특히 군부대에까지 가셔서 손주뻘의 젊은 불자들한테도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신다. 심지어는 미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식에 강연 요청을 받으시고는 노구를 이끌고 미국 땅을 밟으시기도 했다. 다음은 그때 행하신 법문의 일부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이 '한 물건'. 무어라 명(名)과 상(相)을 붙일 수 없으되 만유가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현현(顯現)으로 존귀한 인간 생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한 물건'을 가리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하였습니다.

이 존엄한 생명을 가벼이 여김으로써 인류에 많은 불행과 재난을 초래하였고, 세계는 투쟁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략)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평화와 행복보다는 불행과 투쟁에 의한 재앙으로 영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인류 사회는 천문, 지리, 물리, 화학, 철학, 종교 등 인간 지혜가 쌓아올린 혜택으로 날로 각성을 더하여 인류의 본래면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 본연의 근본 주체를 등지고, 밖으로 어떤 신이나 주재자를 머리 속으로 지어내어 맹목적으로 따르며,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큰 폐단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동체대비의 생명존중과 인류애를 배워서, 세계가 한 가족이 되는 평화를 구축하는 정신계몽과 정화활동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략)"

1997년 5월 미 육사 졸업식에서 장차 미국의 고급 장교가 될 젊은이들에게 들려준 법문이다. 그런데 과연 유일신 사상에 젖어있는 미국인들이 스님께서 전해준 '한 소식'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천상천하유아독존! 모두가 다 부처라는 이 혁명적 선언을 그들은 알아들었을까? 이런 의문도 사실은 부질없다. 알든 모르든 진리에는 변함이 없고, 스님께서 전한 자비의 메시지 또한 알아 듣고 못 듣고와는 관계없이 인간 삶의 바탕이므로. 다만 그것을 빨리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스님께서는 아직도 정정하셨다.

"무슨 건강 비결 같은 건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어. 비결없음이 비결이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가고 옴이 본래 없는데."

스님께서는 제자들조차 자주 들르지 못하게 하신다. 평생을 절집에 사셨지만 많은 상좌를 두지도 않으셨고, 몇 안 되는 상좌들도 대부분 선방이나 토굴에서 정진을 하므로 아주 가끔씩 얼굴을 마주할 뿐이다. 시봉을 자청한 젊은 제자들도 6개월씩 번갈아 가며 스님과 살다가 선방으로 든다.

번잡을 멀리하는 스님의 성품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언젠가 스님을 따르던 재가 신도들의 일부가 '서암회'라는 걸 조직했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노하시고는 그 핵심 인사를 호되게 꾸짖으시고 모임을 해체시켰다 한다.

이렇듯 스님은 모든 걸 훌훌 털고 사신다. 하지만 조계종의 종정을 지내셨던 분 답게, 오늘의 한국불교에 대한 기대와 염려 또한 크셨다.

"이제 더 이상 종단에 분란이 있어서는 안돼. 이 시대의 중생들이 '안심입명(安心立命)' 할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이 돼야지.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모르면 세상살이가 칼날 밟기와 같아져.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게 불교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구제는커녕 자기 구제도 못해."

스님 말씀처럼 며칠 푹 쉬었다 가고 싶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하룻밤을 지낸 다음날 아침 하직 인사를 여쭈자 스님께서는 화들짝 놀라는 시늉을 하시며 한 말씀을 건네신다.

"아니 벌써 가려고? 서울로? 서울이 그렇게 좋아? 그럼 나도 거기 좀 데려다 줘."

스님의 농담은 달랐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법문이 아닌가.

문밖을 나서는데 스님께서 슬며시 무언가를 건네신다. 붓을 놓은 지 오래되셨다는데 언제 쓰셨을까?

'자비무적(慈悲無敵)!'

독자들과 나눌 선물로 이보다 더 좋을 게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는, 밤새 새로이 내린 눈이 어제의 발자국을 지워버린 산길을 되짚는다. 한참을 내려서서 뒤돌아보니 그때까지도 스님께서는 눈밭에 서 계셨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글·사진 윤제학 부장 (yunjh@buddhapia.com)



◇절집이라는 울타리마저 넘어선 수행자에겐 앉고 선 곳이 곧 청정도량이다.

"생명 가벼이여겨 불행과 재난 초래 인류 갈등으로 신음"

"똥지게를 지든 금 치장을 하든 사람의 본바탕은 달라질게 없어요"



◇서암스님의 설법에 감응한 미국 LA시민들이 전한 LA명예 시민증.



◇현대불교 독자들을 위해 쓰신 휘호. 자비로운 사람에겐 적이 없다는 가르침이다.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정안스님



사찰이든 가정집이든 그 집 안 주인의 안목과 분위기에 따라 가구의 배치, 소품의 배치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텅 빈 방안에 경상(經床)과 가사 한 벌이 걸려 있는 공간도 말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운치지만 오밀 조밀 찾는 사람의 눈길을 순간 순간 포착할 수 있는 운치가 있다면 이 또한 즐거운 일이다. 정안스님이 사는 도량이 그러하다. 고전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그런 도량이다. 만약에 정안스님이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실내 디자이너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한번은 백양사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에서 3년 동안 두문불출 지장기도를 하고 있다는 정안 스님을 찾아간 적이 있다. 그때 스님은 사분 정근을 하면서, 기도 틈틈이 붓글씨를 써서 암자를 찾는 신도들에게 나누어주며 포교를 하고 있었다. 일단 그곳을 참배 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지 않는다는 스님의 원력에 따라 빛깔고운 낙엽을 모아 코팅을 하여 책갈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 경전말씀을 코팅하여 누구라도 가져 갈 수 있게끔 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무렵 또 찾아갔을 때는 관공서를 찾아 다니면서 문화재 보수비를 얻어내어 전통도량에 어긋나지도 않으면서 정안스님의 성격과 분위기에 걸맞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을 보았다. 신

재주많고 말보다 행동으로
승가대 꽃꽂이동아리 주도

도도 없는 산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나의 말에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부처님이 만들어 주신 일이고 나는 그저 심부름을 한 것뿐인데 뭘... 나는 그래도 전통사찰인 본사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비라도 타서 불사할 엄두를 내지만 정운 스님이야 말로 불모지인 그곳에서 포교하는 일이 대단해요."

스님과 나는 승가대학 동창이지만 정안스님은 운문사 강원의 대 선배이기도 하다.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스님과는 달리 기숙사 한방에서 오래 같이 생활을 했고 또 함께 소임을 살았다. 당시 승가대학 비구니기숙사의 살림은 턱없이 가난했고 학생소임자가 살림을 운영해야만 했다. 정안스님은 기숙사 원주소임, 나는 비구니회장 소임으로 얼마간 함께 살림을 꾸려 나갔는데 어느날 기숙사에 작은 재 하나가 들어왔다. 돈의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둘은 얼마나 기뻤는지모른다. 작은 돈이지만 이 돈으로 스님들에게 오랜만에 별식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재물(齋物)도 마련하고 공양거리도 마련할 겸 함께 시장에 나갔다. 원주소임으로서는 당연히 재물을 먼저 사고 대중공양거리를 사야 하는데 정안스님은 대중들에게 뭘 좀 먹여 볼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는 생각에 재물 살 돈까지 몽땅 공양거리로 장만하여 돌아와 대중들에게 포식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재물 마련할 돈이 없어 여기저기 탁발을 하여 재를 지내 준 적이 있다. 그날 대중들은 정안스님의 이런 마음을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고 오래간만에 그냥 포식을 했다.

지금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에게 주어진 꽃꽂이 수업도 정안스님이 만들어 낸 원력의 산물이다. 스님은 운동도 좋아하고 노래도 잘하는 등 다양한 재주와 취미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문화의 혜택이 주어졌을 때 뭔가 배워서 졸업후 그 뜻을 펴 보겠다는 스님의 원력에 따라 틈틈이 꽃꽂이를 배우다 보니 꽃꽂이가 불교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일본에서는 최고의 꽃꽂이 사범이 스님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꽃꽂이 동아리를 만들어 스님들에게 보급해 각 사찰에 돌아가서 정성어린 손길로 창작을 해 부처님전에 꽃을 올린다면 사찰을 찾는 신도들에게도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는 길이 아니냐는 정안스님의 제안이 좋아 학교에 건의하여 그때부터 '향원'이라는 꽃꽂이동아리가 결성되었다. 학교축제 때는 작품전까지 열었다. 정안스님은 꽃꽂이



사범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스님은 재주가 많지만 거기에 빠져 안주하지 않는 것이 정안스님만이 가지는 장점인지도 모른다. 학교 졸업후 은사스님이 계시는 본사로 돌아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연고도 없는 전라도 땅으로 내려가 허물어져 가는 암자를 몇년동안 힘겹게 복원했다. 이제 좀 편하게 지내는가 했더니 어느 날 주지자리를 상좌에게 물려주었다는 소식이 들리고는 끝이었다. 대구 어느 토굴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다. 3년기도를 마치고 지금은 오대산 지장암에 들어가 대중을 외호하는 소임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 접했다.

스님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북적인다. 그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변함없이 대하며 말 보다는 행동으로 포근히 감싸는 스님, 다양한 재주를 가졌지만 그 재주를 내보이지 않고 안으로 영글어 가는 정안스님이 갑자기 보고싶다.

이 겨울, 서해에서 나는 맛있는 김 사들고 오대산에 다녀오고 싶다. 그리고 힘있어 보이는 정안스님의 눈빛을 만나고 싶다.

▩ 세원사 주지

설산스님 에세이
알몸
덧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스님의 구도에세이
청어와삐삐 02-586-0477
가격 7800원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발적인 영기천도 능력 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원장 윤정주 저서
진여(眞如) 氣 수련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르는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책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쳐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후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